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행사 1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행사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회 의장, 도 교육감, 14개 시장·군수, 도 소재 국가기관장, 도민 대표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전북도>

전북자치도 출범 1년... '새로운 100년' 담대한 도전 시작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첫돌 맞아 기념행사 열려 출범 1주년 도민보고, 지난 1년 노력·미래 변화상 설명 5대 핵심산업 육성 및 특례 기반 강화 발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도 교육감, 14개 시장·군수, 도 소재 국가기관장, 도민 대표 등 1천600여 명이 참석해 특별자치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100년, 변화의 모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지사는 출범 1주년 도민 보고를 통해 2024년 12월 27일 전북특별법이 시행되기까지의 노력과 전북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5대 핵심산업의 추진상황, 전북자치도의 미래상을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당초 28개에 불과했던 '전북특별법' 조문을

131개로 확대하고, 해당 조문을 75개 사업화 과제로 확정해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구상과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수립하는 등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인프라,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토대로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 등 5대 핵심산업이 육성된다.

도는 농생명산업과 관련해 지역의 최대 강점인 농생명 자원을 활용할 방침이며 지난해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구 7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농생명 산업지구로 공식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관광산업의 경우 한식, 한복, 판소리 등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산업 진흥지구 4개소, 친환경 산악 관광지구는 6개소를 후

보지로 선정했다. 또 무주·부안을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지정하고, 순창을 산림복지지구 후보지구로 지정했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바이오융합산업진흥·수소이차전지 산업육성·AI기반 금융산업 진흥 등 미래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 미래형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가 차질 없이 실행된다면 2040년 전북의 미래는 1천531개의 기업 유치, 53조7천억 원의 투자금 유치, 1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지사,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 국회의원, 시장군수들이 무대에 올라 첫돌을 맞아 새로운 전북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화합포포먼스를 갖고,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에 뜻을 모았다.

/김은지 기자

사상 첫 現대통령 구속...계엄 47일 만에

'국헌문란 목적 폭동' 혐의 소명 판단... '증거인멸 우려' 尹측, 법정서 '통치행위' 주장했으나 법원 설득 실패 체포기간 포함 최대 20일 구속...10일 조사 뒤 검찰 이첩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재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위헌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범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 우범무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

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들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합의했는데, 오는 24일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영욱 기자

스페인 언론들, 전주 '세계적 미식 중심지' 조명 관심

글로벌 미식 트렌드, 전주 비빔밥에서 시작된다 전통 기반 현대적 미식 체험 중심지...K-푸드 원동력 비빔밥에서 출발한 전주의 세계 미식 여정

음식창의도시 전주가 미식 관광을 선도하는 가장 트렌디한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미디어 그룹 '프렌사 이베리카'가 발간하는 '젠틀맨'을 비롯해 스페인 복수의 매체가 전주를 세계적인 미식 도시로 소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스페인 월간지 젠틀맨은 1월호 기사에서 '유행하는 미식 도시는 코펜하겐도 마드리드도 아닌 한국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전주를 소개했다. 이 매체는 전주가 비빔밥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맛과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롭게 담아내는 독특한

미식 체험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에서는 최근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한식당 수가 10% 이상 증가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주가 K-푸드 열풍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부각했다. 특히, 비빔밥을 비롯한 전주의 요리가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독창성을 제공해 세계적인 미식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도는 스페인의 컨설팅 회사 '텔런트 세프'가 발표한 '2025년 미식 도시' 7개소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텔런트 세프는 전주를 두바이와 마나우스(브라질), 트빌리시(조지아), 리마(페

루), 도쿄(일본), 스페인 전역과 함께 올해 주목할 미식 여행지로 선정했다. 주바르셀로나 총영사는 이번 텔런트 세프의 2025년 미식 도시 선정 결과를 해당 잡지 외에도 스페인 여타 언론 매체에도 인용 보도되었으며, 미식은 스페인 국민들의 여행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는 전통과 현대의 융합으로 K-푸드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14개 시군 대상 치유음식개발 공모전, 미식여행상품 개발,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 스토리형 미식이이드북 제작과 대내외 홍보를 통해 전북 미식 관광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임실군의의회
IMSIL-GUN COUNCIL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

임실군의의회

도,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공모 선정

장수군, 국비 12억 확보...첨단농업 환경 구축·지속 가능 사과산업 육성 박차

전북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장수군이 선정돼 17ha 규모의 고품질 사과 생산 단지를 조성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2축형·다축형·밀식재배 등 구조가 단순한 평면형 과수원 조성을 통해 기계화를 촉진하고 내재해성과 조중생 품종으로 갱신하는 한편,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해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기존 대비 노동력을 30% 절감하고 생산성을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과수 주산지 7개 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장수군이 사과 주산지로서 사업 추진 의지와 농가 조직화 역량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이를 통해 총사업비 40억원 중 1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장수군은 지자체와 생산자 모두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하고 반경 3.5km내 사

업 추진이 가능한 점(집단화), 신종종전환 비율, 농가 조직화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장수군은 올해부터 오는 27년까지 3년간 장수읍과 천천면 일원 17ha 규모에 기계화·자동화 시설 기반 조성, 품종갱신·재해예방시설, 기계 전정 트랙터 등 공동이용장비, 재배기술 컨설팅, 사과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빈번한 이상기후와 농업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첨단농업 환경

을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김중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사과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 혁신사업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돈 버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전북 바뀌네겠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변화와 전진에 총력” 다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7일 “낙후와 소멸 위기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단 하나, 전북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행사에 앞서 이날 도청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1년 전 특별자치도 시작을 알렸고 기필코 전북을 바꾸겠다는 간절함으로 달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시행하는 친기업 환경 조성 특례, 농생명산업 선도 특례, 환경·산림분야 특례, 문화·관광분야 특례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 1년이 됐지만) 제도와 인력, 인사와 예산 등 난관도 많다”며 “성과를

얻기까지 5년이 걸릴 수도,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멈추지 않고 도전하고 전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전국으로 전북특별법 추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올해 추가 특례를 입법화하고 기존의 특례를 보다 구체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는 17개 광역시·도별법을 기반으로 시행하는 친기업 환경 조성 특례, 농생명산업 선도 특례, 환경·산림분야 특례, 문화·관광분야 특례 등을 설명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출범 1년이 됐지만) 제도와 인력, 인사와 예산 등 난관도 많다”며 “성과를

/김관 기자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강화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인력 24시간 상주...“안전한 설 연휴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설 연휴 기간 병·의원 및 약국 휴진으로 인해 응급 질환 상담과 겨울철 유행성 감염병(독감 등)으로 인한 병원 안내 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지난 10일 본격 운영을 시작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인력이 24시간 상

주한다.

주요 업무로는 구급대 병원선정 및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 등이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의 연결 상담도 제공한다.

지난해 설 연휴동안 119 상담 건수는 총 1천540건으로, 하루 평균 385건에 달했다. 이는 평상시 하루 평균 160건의 2.5배를 넘는 수치다.

소방본부는 이번 설 명절에 대비해

상담전화 5대를 추가로 증설해 총 9대로 운영하고, 신고 폭주에 대비해 기간제 전문인력(1급 응급구조사 등) 4명을 채용해 운영한다.

또한,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119스마트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병원 선정 및 이송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권역심뇌혈관센터, 화상 전문병원 등과의 질환별 네트워크 및 순환망 현황을 사전에 구축해 효율적

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숙 소방본부장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인력 보강과 시스템 확충으로 도민들의 의료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다”며 “연휴 기간 응급 상황 발생 시, 휴무의 료기관 및 약국 정보, 응급처치 상담이 필요하면 119로 전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성공 위한 자문회의 열어

전북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최종 평가에 앞서 유치 성공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평가 이후 보완점, 최종 발표 및 평가 대비 예상 질의 답변, 유치 논리 보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주교대와 전북대 등 도내 체육

학과 교수진 10여 명이 자문회의에 참가해 올림픽 유치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지난 6일과 7일 양일 간에 걸쳐 추진된 현장평가 후 도출된 보완점 등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이루어진 후, 최종 발표와 투표에 대비하기 위해 유치 논리 보강과 계획의 내실화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자문회의에 참가한 교수진들은 전북의 올림픽 유치 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아끼지 않았으며 유치 과정에서의 지역 주민의 지지도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 평가하며, 도민 역량 결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전북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진행된 자문과 논의를 활용해 내달 말로 예정된 대한체육회의 최종 평가와 개최지 선정

투표에 대비해 전북의 올림픽 유치 전략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자문회의의 열기를 통해 전북의 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전북의 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박정희 도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 특위’ 위촉

전북자치도의회 박정희(군산3)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정책지원 인력 업무 구체화 및 표준화, 체계적·효과적 운용 방안 마련, 대정부 건의안 제출을 통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의회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올해 6월 말까지 운영된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체계적·효과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전북자치도 출범과 발맞춰 도민들을 위한 특례 발굴 및 특례실행을 위한 입법지원 활동을 지원, 집행부의 견제·감시기능을 넘어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 기자

전북도, 주요 시설 공중화장실 점검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후보자 등록

전북자치도는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도민과 귀성객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공중화장실 안전·편의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도내 14개 시군별로 점검 계획을 자체 수립해 교통시설과 관광지 등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확충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위생·청결 강화 ▲방역지침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

는 내용이다.

점검 과정에서 청소 불량 등 경미한 문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시설물 파손이나 기기 오작동 같은 주요 문제는 신속히 보수해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설 명절 동안 고향을 찾는 도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과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오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2024년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금고이사장선거에도 도입됐으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한 사람은 ▲전화 및 문자 메시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

동용 명함 배부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시작해야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금고이사장선거가 시작됐다”며 “인적·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절차사무의 신뢰성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 기자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4가지방법

수도계량기가 얼었다면? 수도계량기가 얼었다면 드라이기로 약하게(50도 미만) 설정후 녹여 주는 방법이 좋아요

1.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 보온재를 잘넣고 뚜껑을 밀폐

2. 옥외 화장실, 외부에 노출된 배관에 보온재를 풍공 묶기

3. 장시간 외출시, 수도물을 매우 약하게 틀기

4. 동파방지열선 구매해서 활용하는것도 예방에 도움

우범기 전주시장,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추진

21일 시작, 1년 간 35개 모든 동 순회...시민 권의 사항 답변 및 검토·조치 등 해결방안 찾아갈 것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력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올 한해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기로 했다. 특히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문제를 직접 청취하고 그 해결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주시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직접 오는 21일 호성동을 시작으로 1년 내내 35개 모든 동을 순회하며 전주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동 순회는 민선8기 전주시정에 대한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동별로 통우회, 주민자치협의회, 동 자생단체 회원 등 주민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2025년 전주시정 비전인 '확실한 변화! 함께 여는 전주의 큰 꿈!' 실현을

위해 각 동별로 ▲동 현황 청취 ▲2025년 시정운영 방향 공유 ▲시민과의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는 기존 연두 순방과는 달리 올해의 경우 1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35개 동을 모두 순방하며 또한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소통에 중점을 둔 연두순방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민과의 대화는 현장에서 자유롭게 진행된다. 전주 발전과 각 동별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이후 해당부서에서 면밀한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검토 결과를 동 순방 참석자들에게 전달·공유하게 된다.

단순한 사안은 즉각 조치하고, 장시간 또는 많은 예산,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면 그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게 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력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올 한해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기로 했다.

특히 시는 동 순방 과정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문제를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 및 필요사업을 구상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대내외적으로 몹시 혼란스러운 정국 속,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해를 만들겠다"면서 "특히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고, 전주대변력의 비전과 계획을 차근차근 실현해 가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윤동욱 전주 부시장, '전주함께라떼' 동참 평화동 '온평에 커피 전달, 전주함께라떼 제1호 기부 실천

지난 2일 부임한 윤동욱 제52대 전주 부시장이 1인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주시 특화사업인 '전주함께라떼'의 제1호 기부자가 됐다.

윤동욱 부시장은 지난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평화동 내 복지 현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윤 부시장은 완산구 영구입대아파트단지에서 위치한 평화사회복지관 등을 찾아 운영 현황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어 윤 부시장은 1인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주함께라떼'와 '전주함께라떼'를 운영하는 주민공유공간인 '온평'을 찾아 '전주함께라떼' 제1호 커피 기부에 동참하기도 했다.

'전주함께라떼'는 '전주함께라떼'와 함께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과 주민 소통을 위해 전주지역 6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카페 공간으로, 윤 부시장은 평화복지관과 '온평'의 전주함께라떼 공간을 찾아 커피 한잔의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달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윤동욱 부시장은 "설 명절은 서로의 온정을 나누는 시기"라며 "우리 이웃들이 모두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누구나 먹고 가고, 누구나 놓고 가는' 나눔의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설 명절 맞이 청소종합대책 수립 가동

시민 불편 최소화·생활폐기물 관련 민원 대응, 연휴 기간 청소상황실 및 기동처리반 운영

전주시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설맞이 청소종합대책을 가동키로 했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설 연휴 기간 청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명절 전후로 청소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를 '설맞이 청결주간'으로 정하고, 불법 폐기물 등 쓰레기가 적치된 취약지의 쓰레기를 말끔히 정리하기로 했다.

또, 동별 취약지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자원단체, 일반시민 등이 합동으로 일제

대정소를 실시하고, 직영구역의 민원 해소 위해 민원이 집중되는 대형폐기물 성상에 대해 대행업체를 통해 일부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대정소는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와 생활쓰레기 감량 등 시민들의 성숙한 생활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을 실시해 연휴 기간 다량 배출되는 쓰레기 수거 및 각종 청소 민원을 해결토록 조치할 계

획이다.

동시에 시는 생활 쓰레기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각각 청소상황실을 운영하고, 직영 및 대행업체별로도 자체 기동처리반도 가동한다.

이와 함께 시는 설 당일인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쓰레기 수거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사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등을 통해 쓰레기 수거 휴무일을 알려가급적 쓰레기 배출을 자제하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전주한옥마을과 서부신

시가지, 고사동 영화의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방문객이 많은 8곳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하고, 연휴 기간 및 쓰레기 수거 휴무일에도 가로 청소 등을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에 나선다.

이영숙 전주시 자원순환복지국장은 "설 명절 기간 차질 없는 생활폐기물 수거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설 연휴 기간 시민들께서도 음식물 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해 주시고, 쓰레기 배출 시간 준수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

전주시가 경기 한파와 불안한 정국 속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겪으며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시는 올해 기존에 시행해온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법적 문제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특히 시는 올해 민생 안정을 목표로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주요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1월과 2월 두 달 동안 각 동 주민센터에서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SNS를 활용하는 등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상담은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이 자주 직면하는 ▲상법(계약서 작성 및 계약 불이행) ▲세무(세금 신고 등) 문제 ▲근로기준법(근로자 권리 보호) ▲산업재해 및 연금(산재 및 보험) ▲임금 체불 등 불법 고용 문제가 중점 다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완산구청에서 사전에 신청한 시민 15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번째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에는 위촉된 법률상담관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법적 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민생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영숙 전주시 인권법무과장은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이 겪는 법적 문제를 해결해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군산해경, 선내 LPG 설치기준 위반 어선 4척 적발

2월 28일까지 정박어선 대상 유관기관 합동 점검·단속 나서

해경이 동절기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여전히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 가운데 어선설비기준에 맞지 않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설치 하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군산 내항 인근에 정박 중인 7톤급 어선 A호를 발견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액화석유가스(LPG)의 설치기준을 위반하고 고박상태 불량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

지 않아 어선법을 위반한 혐의다. 해경은 최근 잇따른 어선 폭발·화재 발생에 따라 군산시, 군산소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지난 6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두 달 여간 ▲20톤이상 선박의 무억함내에서 용접작업 ▲용접·용단 작업 전 안전조치 여부 ▲수리된 슬래그·부산물 해상투기 ▲액화석유가스·전기 이용설비 등 적합 어선설비기준 등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을 펼치고 있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안전한 사고와 잠깐의 부주의는 대형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규정을 반드시 지



적발된 어선의 LPG 설비 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해경 인원의 모습. (사진: 김승길 기자)

수행할 것"이라며 "연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할 예정이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군산=김승길 기자



전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 인권 교육 실시

전주시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전주시 23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아동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김미선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강사로 초청돼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공유 ▲아동학대 사례 발생 시 대응 방법 ▲아동 인권 보호 등에 대해 안내했다.

정소연 전주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 인권 보장 및 안전장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10주년...변화 모색 나서

전주시가 도시재생사업 10주년인 2025년 새해를 맞아 그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련된 거점시설의 운영주체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지난 17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전주시 도시재생 성장 방향 재설정 및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거점시설의 운영 주체인 도시재생 사업지역 주민협의체 대표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도시재생 현장에서 행정과 협업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10년 동안 총 18개 사업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날 간담회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지 10주년이 되는 시점에

서 지혜를 모으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운영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기존의 사업 수행 현황 및 현장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지난 10년간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은 권역별로 국가사업 공모 및 선정 등을 통한 국비 보조로 진행됐으며, 마중물 사업의 일환으로 곳곳에 거점시설을 설치해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개선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운영되며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해왔다.

그 결과 현재 전주지역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총 32곳이 조성됐거나 조성 중으로, 주로 거점시설의 지역적 배분과 운영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에서 지역 운영 중이거나 주민협의

체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직접 운영 또는 공모를 통해 지역기반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나뉜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거점시설의 운영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전주시 도시재생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도시재생 중간조직인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전 과정에서 핵심 지원과 조정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 거점시설 모니터링과 후속 사업 및 연계사업 추진 등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영태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전주', 아이돌봄 지원 확대

전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더 많은 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유형 및 이용요금 지원 대상 확대 ▲시간당 이용요금 및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인상 ▲영아 돌봄수당 지급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기간 단축 및 이용요금 인하 등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구, 장애 부모 등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돌봄서비스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특히 이용요금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올해는 20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더불어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

고, 돌봄 사각지대를 메꾸 돌봄서비스 질을 점차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초·출발한 '전주시가족센터'를 통해 돌봄뿐만 아니라, 교육, 상담, 문화·진로 지원 등 통합 가족 서비스를 제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가족 공동체 구현에 힘을 계획

이다.

/김영태 기자

도,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1천5백억 지원

전북신용보증재단과...신용보증 1천5백억 확대, 보증처리 7일→3일 단축 신속 지원

올해 1조 2천억원 보증공급 목표, 민생경제 회복 선도

전북자치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총 1천5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부족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적시에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북 위기극복 특례보증 45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

억원 ▲첫걸음 기업 금융지원 특례보증 100억원 등 총 7건의 신규 보증 지원과 ▲대한자금 및 상환 유예 350억원 등이 포함된다.

전북신보는 신용보증 처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해 소상공인이 신속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비상지원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저리 용자에 필요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방진다.

한편 전북신보는 지난해 1조 보증공급에 이어,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천억원의 보증공급 목표를 설정해 전북 경제의 활력 회복에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자금 특례 보증'을 지난해 1천350억원에서 2천8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경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보(1588-3833)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태 도 기업유지지원실장은 "이번 긴급자금 지원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지원받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제1회 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작년 위탁선거법 개정 후 도입...예비후보자 등록 첫 시행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는 오는 3월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이달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2024년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금고이사장선거에도 도입됐으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품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고이사장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명 명함 배부 등 위탁선거법

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금고이사장선거가 시작됐으며 금고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인적·물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절차사무의 신뢰성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주시, 청년농업인 소통 간담회 개최...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지 임차자금 지원 등 어려움 적극 청취...9억7천만 원 투입 디지털 농업기술 보급·스마트팜 지원 등 정책 추진

전주시가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지난 17일 전주시청 청년농업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농업인들이 농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청년농업인들은 ▲높은 지가로 인한 농지 임차 및 구입의 어려움 ▲농업지식 부족으로 인한 재배작목 선택의 어려움 ▲자금 마련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또, 필요한 보조사업으로 ▲자금 지원 ▲농지 임대 ▲시설 보조 등을 건의했다.

또한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해 안내했다.



전주시는 17일 전주시청 청년농업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시설유에 연동하우스 지원 ▲청년 맞춤형 디지털 농업기술 보급 ▲맞춤형 스마트팜 시설 지원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품목별 자율모임체 컨설팅

지원 등 11개 사업에 총 9억7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내년에는 시설보조 사업과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확대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농업인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자주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청년농업인들이 전주시 미래농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미래 농업을 이끌 주역인 청년농업인들과 솔직한 대화의 시간을 갖게 돼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전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한전 전북본부, 안전문화 정착 위한 특별교육 진행

전문 사외감사 초빙 노사합동 안전교육 시행

한국전력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 위임장 서재용)는 지난 15일 전북본부 경영당에서 본부장, 사업소장 등 경영진 및 노동조합 지부·지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분야 전문감사(최은나 노무사)를 초빙해 특별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노사 간부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본부 내 안전 최우선 기업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적극 실천해 추진됐다. /최준호 기자

이날 교육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리더의 역할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 등이 전달됐고, 교육 후 토론시간에는 참석자들이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연원섭 본부장은 "노사 모두 안전에 민감한 리더가 돼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작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관리 활동을 적극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전주시, 도내 타 시·군 연계 관광 브랜드 'MYMY TRAVEL' 출시

관광거점도시 전주 중심으로 인근 지역 관광객 확산, 전북 관광 활성화 도모...동계 여행상품 테마는 '미식 여행'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군 연계 관광 브랜드인 'MYMY TRAVEL'을 출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을 주변 전북특별자치도 내 다른 시·군으로 확산시켜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는 전북지역 8개 시·군과 협력해 각 지역의 대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한 여행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면 개편을 통해 새롭게 출시되는 'MyMy Travel' 동계 여행상품의 테마는 '겨울 보양식과 막걸리'를 주제로 한 미식 여행이다. 이 여행상품은 렌터카와 연계한 자유 여행 형태로, 4만 원 상당의 렌터카 이

용권과 전주시 삼천동 막걸리 골목을 비롯해 고창의 장어, 부안의 꽃게, 무주의 오리, 정읍의 콩과 버섯 등 지역 대표 음식집의 식사권(2만 원 상당)을 50% 할인된 금액인 3만 원에 제공한다. 이 상품은 쿠팡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캠핑과 웰니스, 교육 등을 주제로 한 자유여행 및 단체여행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전주에서 열리는 생활체육 대회 참가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MyMy Travel'은 해마다 1500만 명 이상이 찾는 전주 관광객에게 전북 곳곳의 매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태 기자

농신보 전북, 산림경영예정자 대상 보증 현장교육 실시

담보력 미약 농림어업인 지원, 창업 자금 활용법 등 안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전북지역 보증센터(센터장 김인순)는 지난 15일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에서 산림경영 예정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농신보 보증 관련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어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림어업관련 대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보증한도는 개인은 15억원, 법인은 20억원(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 보증금액 포함)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농신보 우대보증제도와 보증한도, 이용절차, 효율적인 창업자금 조달방법과 신용등급 관리의 중요성 등을 안내 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인순 센터장은 "연중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농림어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농림어업인들로부터 칭찬받는 농신보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LX, 한국도로공사 토지업무 담당자 대상 지적분야 실무역량 강화 교육

LX한국도로공사(LX공사, 사장 어명소)가 한국도로공사 토지업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보상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적 관련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

LX공사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지난해 5월 한국도로공사와 맺은 '고속도로건설 및 국토정보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의 후속 조치로 충남 공주시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지난 16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국도로공사 토지업무 담당자들은 토지보상 관련 지적 최신법령, 토지 이동절차, 예정지적표도 및 지적확정측량 성과를 검증 등 토지보상업무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을 받았다. 또한 지장물 조사 등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해 드론 기술을 적용한 사례와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 이론과



LX공사가 한국도로공사 토지업무 담당자 20여명 대상 보상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적관련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실무를 병행한 교육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했다.

한국도로공사 김재우 토지공감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토지업무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토지보상 등 업무처리 개선으로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토지업무 담당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 토지보상업무에 있어 국민의 편익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LX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건설에 있어 설계부터 준공까지 토지보상 및 시공 효율화를 지적측량 및 상호 시스템 연계 등 상호협력력을 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농협중앙회법무부정읍보호관찰소, 아침밥먹기 캠페인



농협중앙회(정읍시지부, 고창군지부, 부안군지부)는 지난 17일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와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해진 정읍보호관찰소장, 농협 3개 지역 시군지부장(정읍 김순기, 고창 이미정, 부안 조상완) 등이 참석해 쌀을 전달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을 통한 쌀 소비촉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으로 양 기관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정읍시지부, 고창군지부, 부안군지부)와 정읍보호관찰소는 정읍, 고창, 부안 관내 농촌지역 사회공헌활동,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업 사업 발굴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0년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인력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 산하 정읍보호관찰소도 2024년 1,253명의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인력지원을 실시했고 올해는 농촌인력지원에 약 2천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준호 기자

전북교육청,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배정 결과 발표

배정 대상자 총 8,933명... 1지망 배정율 78.5%, 2지망 배정율 89.5%, 3지망 배정율 92.7%

전주시 중학교 배정결과 발표... 전주시내 중학교 진학 대상자 총 6,844명, 지난해 대비 114명 증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늘 오후 2시 2025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39개교(전주 23, 군산 8, 익산 8)의 배정 결과를 '전북고입포털'과 중학교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전북교육청은 앞서 지난 10일 평준화 지역 합격자 총 8,933명을 발표(정원의 포함)했고, 지난 14일 공개 배정추천회를 열어 학생·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고등학교 배정 추첨을 시행했다. 배정 결과 전체 대상자 8,933명 중 다자녀 선배정 대상,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질환자, 체육특기자 등 선배정 등을 포함한 7,011명(78.5%)이 1지망 학교에 배정됐다.

2지망까지는 89.5%, 3지망까지는 92.7%의 학생이 배정됐다. 입학등록은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이며, 배정된 고등학교 누리집 통해 학

교별 등록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이날 전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배정결과'도 발표했다. 올해 전주시내 중학교 진학 대상자는 총 6844명으로 지난해 대비 114명 증가했다.

배정 결과 1지망 배정율은 91%로 전년도에 비해 1.54%p 감소했으며, 3지망 내 배정율은 99.5%로 전년도보다 0.04%p 감소했다.

배정 결과는 전주교육지원청 누리집

에서 17일 오후 2시부터 조회 가능하며, 학생들은 해당 초등학교를 통해 개인별 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오는 21일부터 배정받은 중학교의 예비소집에 참여해 입학 안내를 받아야 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평준화 지역 모든 고등학교가 학생들이 만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협약

학교 밖 교육의 하나... 고등학교대학학점 동시 인정제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지역대학교와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를 구축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전주 왕의지밀 사임당홀에서 국립군산대, 군산간호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교대, 전주대, 전주비전대 등 도내 8개 대학과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학교 밖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는 학교 밖 교육의 하나이며,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학점이 동시에 인정되는 제도이다.

대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심화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별,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면 고등학생이 3년간 최대 8학점까지 주말이나 방학 등을 이용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과목을 이수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과목명과 학점, 객관적 학습 내용에

등이 기록된다. 다만 대학에서의 학점 인정 범위와 기간, 절차 등은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정해진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제도는 대학의 여건과 준비 상황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참여 대학은 전국에서 전북이 8개로 가장 많다. 이어 부산·대구·광주 각 2개 대학, 울산 1개 대학 순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교육청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공동교육과정, 전북온라인학교,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학교 밖 교육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대학과 적극 협력해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력 제고에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예술대, 조건부 기소유에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처벌 대신 미술치유' 청소년 예술치유 프로그램 결과 전시... 미술체험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법정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인 '청소년 아트테라피 J.A.T'가 제5기 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갖는다.

지난 16일 오후 5시 30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 지하 1층 전시장에서 양오봉 총장과 박영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총괄 기획한 예술대 임혁용 교수를 비롯한 예술 강사, 참여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식이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전북대 예술대학과 전주지방검찰청,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전주지역협의회가 주관해 2021

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처벌 대신 12주간의 미술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예술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3개월 동안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일 3시간씩 미술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되짚고, 자아성찰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시에서 참여 학생들은 서툰지만 예술가들과 함께 소통하며 내면의 감정을 탐색하고, 자신만의 안식처를 표현한 미술작품을 선보인다.

학생들의 작품을 통해 자기성찰과 심적 정화의 시간을 갖고, 전시 작품을 바라보는 어른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오봉 총장은 "아트테라피는 자기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 활동으로, 자신을 성찰하면서 상처 난 마음까지 치유하는 소중한 의미 있는 활동"이라

며 "청소년들이 진지한 자기성찰과 자존감 회복을 통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그 바탕 위에 희망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삶의 목표를 새롭게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 2025년도 대학 등록금 동결... 17년 연속



해소하기 위해 '등록금 도미노 인상'을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장호 총장은 총학생회(회장 임주예)와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국립군산대학교의 학기당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이 165만 9000원, 예능·공학계열 211만 9000원, 이학·체육계열 197만 8000원으로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중 최저 수준이다. 이에 반해 장학금 수혜율은 학부 재학생 전체의 87.2%에 달한다.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가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국립군산대는 2009학년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대학(학부) 등록금을 인하 내지 동결하게 됐다.

최근 여러 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최성민 기자

서거석 교육감,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챌린지 동참

"학생들에게 더 큰 세상을 향한 꿈을 키울 소중한 기회"... 다음 참여자 양오봉 전북대 총장·김정기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지목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17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성공적인 202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도민의 지지와 참여 확산을 목적으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지목을 받아 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SNS를 통해 "전북의 올림픽 유치는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고 더 큰 세상을 향한 꿈을 키울 소중한 기회"라며 올림픽 유치가 갖는 교육적 가치를 적극 피력했다.

이어 "도민의 염원이 담긴 원대한 도전에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며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북교육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서 교육감은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김정기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목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초등학생·학부모 겨울방학 학습 상담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5일간 '겨울방학 학습 상담주간'을 운영한다.

전주학력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겨울방학 학습 상담주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학습 동기 및 학습 전략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습 역량을 키우는 게 목적이다.

사전에 학생별 학습 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학습 상담을 제공해 올바른 학습 습관 형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최성민 기자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해 알아야 할 도로 표지판



미끄러운 도로
[주의표지판]



내리막 경사
[주의표지판]



안개 지역
[보조표지판]



안개 지역
[보조표지판]




벽골제, 생태습지로...4억3천만원 투입

김제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추진...생태 녹지공간으로 조성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벽골제 생태농경원 내 둠벙을 생태습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의 '2025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으로 국비 4억 3천만 원이 투입돼 추진된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일부를 반환받아 자연환경 보전과 복원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둠벙을 자연적인 생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한국농어촌공사와 환경부가 지정한 대행사업자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생태습지로 새롭게 변모할 둠벙은 지역 내 친환경 공간을 확대하고,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시는 벽골제 생태농경원 내 둠벙을 생태습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이 조성되는 생태습지 사업은 벽골제 관광지와 연계해 생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생태습지 조성으로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민생활력 위한 할인·환급 추진 설 명절 맞이 소비 촉진·활기 부여, 구매 혜택 가득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각종 할인 및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제사랑카드페이백 이벤트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개인이 김제사랑카드를 가맹점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결제 금액의 5%를 2월 말 페이백 지급한다. 이번 이벤트로 총 15%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동일 기간에 추가로 진행되는 김제사랑카드 전통시장 장보기 이벤트는 김제사랑카드 총 3만원 이상 구매 시 자동 응모되며, 2월 말 100명을 추첨해 1만원을 지급한다. 이 이벤트는 아케이드 내부의 김제전통시장과 5일장에서 가능하며, 신규 지정된 김제중앙시장도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을 제외한 디지털(카드형,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내달 10일까지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고, 매주 최대 2만원까지 결제금액의 15%를 환급을 진행한다. 또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김제전통시장과 김제중앙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장소(청년몰 입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3만 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 민생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각종 할인 및 환급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활기찬 상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단 참여자 공개 모집...2월 3일까지

부안군은 지역 농특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사업단을 구성하고 내달 3일까지 직거래사업단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군에서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와 박람회, 엑스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e커머스) 판매 지원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부안군 농특산물 홍보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특산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부가 가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원 농촌활력과장은 "이번 직거래사업단 운영이 부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생산자와 가공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람사르습지도시고창군, 식물·곤충 모니터링 교육신청자모집

고창군이 람사르습지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내달 4일부터 27일까지 고창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에서 식물 및 곤충 관련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주 2회씩, 총 8회에 걸쳐 매 회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지역 상관없이 이메일과 네이버폼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곤충과 식물의 이해, 기후변화와 곤충, 겨울을 지낸 로제트 식물과 식물의 한살이, 인간과의 관계로 보는 식물 등 참여자들에게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줄 흥미로운 주제들로 구성돼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번 교육은 지역의 생물다양성 조사를 통해 습지 생태계 변화를 기록하고 주민들이 습지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며 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거라 기획됐다.

7회 이상 교육 참여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향후 생태자원 모니터링 참여 기회도 부여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기후 위기로 인해 습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람사르습지 도시인 고창군의 책임감과 중요성에 커지고 있다. 습지도시 주민들과 방문객들 모두가 생태계 보전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습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예방 합동점검

부안군은 지난 17일 설 명절을 맞아 부안상설시장, 줄포상설시장, 곰소향수산물종합시장을 찾아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화영 부안군 부군수, 부안소방서 관계 공무원과 시장상인회장, 분야별(전기·가스·소방·건축) 전문가들이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겨울철 전열기구 및 난방기 사용 실태 등 화재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회 중심의 자율 방재체계를 강조하며 소방시설 작동 및 관리상태 확인 등을 점검했으며 즉시 시정가능한 부분은 현장 조치했고 일부 미비점은 전문업체를 통해 시정조치하도록 했다.

정화영 부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부안군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의료급여사업 기관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의료급여 사업 기관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사업 평가를 시행해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이용 실적 등 5개 분야 11개 지표를 바탕으로 전국 18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김제시가 유일하게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시는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과 복지재정 효율화, 개별 수급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 연계로 높은 만족도를 달성한 것도 주목받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적절한 자격관리 및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전한 의료비 사용을 유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전국 최대 논콩 생산지 김제시, 미식 투어 접목 나서

김제군, 로컬 시그니처 관광상품화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역 특화품목인 논콩의 가공 및 조리 레시피를 개발해 이를 활용한 로컬 시그니처 관광 상품화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실현에 나섰다.

시는 전국 최대 논콩 생산지로 콩 제품 및 가공원료 공급이 안정적인 점을 활용해 로컬관광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는 미식 투어를 접목할 예정으로 지난 17일 두달 여 간의 레시피 개발 및 전수교육 과정을 거쳐 김제군 상품화를 통한 로컬 시그니처 관광 프로그램 개발 용역 평가 및 시식회를 지평선새마루에서 진행했다. 외부 시식평가단 등 100여 명이 참여

여한 이번 평가시식은 신메뉴 개발 전시 및 시식, 전수업체 요리체험 시범 운영 등 김제군과 두부를 활용한 시그니처 메뉴 8종과 지역 농가의 협업을 통해 각 경영체의 생산품목과 컬러버 메뉴 3종을 개발해 선보였으며 시식평가단의 호평을 얻었다.

이 사업을 통해 콩 대표 가공식품인 두부를 활용한 전복점, 떡갈비 등 고급 요리류와 샐러드, 김밥, 등 손쉽게 응용할 수 있는 일반 요리류, 예그타르트, 푸딩 등 디저트 메뉴를 전시한 배포될 예정이고 일부 메뉴는 당내 음식점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활력수당' 확대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 올해 반일제 근무자까지 포함...설 이전 지급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대표 공약사업인 '사회복지 종사자 활력수당'이 설 이전 지급된다.

지난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설 이전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활력수당(총 1억3000여 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활력수당은 사회복지시설 101개소 1700여명에게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분야 수행기관 종사자 등으로 2025년 1월 현재 고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4대보험에 가입된 전일제 및 반일제 근무자다.

특히 올해는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현장중심의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 반일제 근무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전년도에 전일제 근무자(연10만원)에게만 지원했던 활력수당을 반일제 근무자(연5만원)까지 대상자를 확대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대표 공약사업인 '사회복지 종사자 활력수당'이 설 이전 지급된다.

해 많은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 활력수당은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민선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사회복지분야 대표 공약사업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일선에서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사기진작을 통해 고창군의 복지 서비스가 더욱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농업인 경영 안정 도모 및 가격 경쟁력 제고...1건당 2000원·대상자별 최대 400만원 지원

부안군은 전자상거래로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하는 택배비를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농특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을 자체 생산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하는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총예산은 9000만원으로 택배비 1건

당 2000원 정액 지원이며 대상자별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자 직거래 비대면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향상, 농가 경영 안정 도모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안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상원 농촌활력과장은 "이번 사업

이 부안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농업인과 업체가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속적인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받는 부안 농특산물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아동정책 단가·대상자 확대...지원 강화

2025년 달라지는 아동정책, 아동급식 지원단가 상향조정·디딤씨앗통장 대상자 확대

김제시(시장정성주)는 2025년 아동정책의 지원 단가 및 대상자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급식 지원 단가가 상향 조정된다.

결식 우려 아동 급식지원 단가가 지난해 대비 500원 인상된 9,500원(1식)으로 인상된다.

이는 상생되는 외식 불가를 반영한 조치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

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의 지원 대상자도 확대된다.

이는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장애인 생활시설)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되

는 더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효연 교육가족과장은 "올해 개선되는 복지제도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변화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백종규 기자

임실군, 설 명절 공중화장실 안전·편의 대책 추진

임실군이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해 오늘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설 명절 공중화장실 안전·편의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 사항은 공중화장실 188개소에 대해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위생·청결 강화 이행 등이다.

또한, 공중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벨 시설 작동 여부,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특히 장애인 화장실의 시설점검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안전·편의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겨울방학 진로캠프, 호평 속 마무리

진안군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진안읍 사통팔달센터에서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추진한 2025년 진안군 겨울방학 진로캠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진로 캠프는 재능디자인연구소 대표이자 베스트셀러 '청소년을 위한 300프로젝트'의 저자인 손영배 대표와 아이파스 다열지문검사센터 안자선 대표의 강의로 진행됐다.

30여명의 관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은 유전자 지문을 기반으로 한 선천성 검사와 다중능력검사 등을 통한 후천적 검사를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5일간의 진로캠프가 끝나고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발표하고 본인이 만든 마이북을 전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겨울방학 진로 캠프에는 학부모들도 참석해 자녀와 함께 적성검사와 진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함께 참여한 한 학부모는 "이번 진로 캠프를 통해 지금까지 키워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내 아이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참여 학생, 학부모의 의견수렴과 만족도 조사 진행 등을 실시해 오는 7월 여름방학에 진행되는 진로캠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안군은 오는 2월부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맞은 예비 중학생들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적향상을 위한 학습코칭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장수읍, 설 명절 맞아 온정의 손길 이어져

장수군 장수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돕기 성금과 물품 기탁이 이어져 온정의 손길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읍 남·녀의용소방대(대장 조장현, 임금순)는 지난 16일 "우리 주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같은날 장수라이온스클럽(회장 이석훈)은 "소외이웃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백미(10kg) 30포를 전달했다.

장수읍 남·녀의용소방대와 장수라이온스클럽은 매년 지역주민을 위해 성금 및 물품을 기탁하고 각종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에 훈훈한 미담을 전하고 있다.

차주영 읍장은 "장수읍 남·녀의용소방대와 장수라이온스클럽의 소중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적극행정을 펼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15억원 투입 슬레이트 철거 착수

405동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주민 건강 보호,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임실군이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405동(주택 320동, 창고·축사 등 비주택 30동, 지붕개량 55동)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도 예산 11억원에 비해 4억원 증가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축사) 소유자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일반 가구의 경우는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우선 지원 가구의 슬레이트 철거비는 전액 지원, 일반 지원 가구는 최대 700만원, 200㎡ 이하의 창고 및 축사 슬레이트 처리의 경우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 지원 가구는 1,000만원, 일반 지원 가구는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2월 28일까지



임실군이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을 들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으로 2,284동을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지정폐기물인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시행

업소당 최대 3천만원 대출·최대 5% 이자 지원, 민생경제 회복 버팀목 호응

무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5일 관련 내용을 무주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했으며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 지점에서 수시 상담 및 신청(예산 소진 시까지)을 받고 있다.

전북은행 무주지점 1층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장소에서도 매주 금요일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무주군이 소상공인안전기금으로 2억 원을 출연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것으로, 무주군과 전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 무주군지부와 전북은행 무주지점 등 지역 내 7개 금융기관의 협약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상황은 1년 거치 4년 분할(분기별 원금 및 이자 납입),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 균등분할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자는 최대 5%까지 무주군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를 무주군 관내로 두고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그리고 최근 5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는 사업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며 "특례보증 외에도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해에도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통해 90개 업소에 22억 원을 지원했으며 2억 5천만 원의 이자를 지원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군,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의료공백 '최소화'

진안군은 군민과 귀성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해 설 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9일간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는 응급의료기관 1개소를 포함한 당직의료기관 10개소와 약국 9개소,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7개소가 비상 진료에 나선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인 진안군의료원에서는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긴급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했다.

또한, 진안군은 설 연휴 동안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 여부를 우선으로 점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의료기관과 약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원활한 정보 전달과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아울러, 진안군은 군민들에게 설 연휴 기간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를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진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군민과 귀성객들이 설 연휴 동안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응급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지정된 의료기관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의회, 제343회 임시회...12건 안전 의결 예정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제343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조례안' ▲'임실군 일반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 ▲'임실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성재 의원 대표발의) ▲'임실 거주 군민 및 군민 가족 지원 조례안'(김광중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임실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12건의 안전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장종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길상여의(吉祥如意), 모든 일이 길하고 뜻대로 되기를 기원하며,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군민의 뜻을 받들어 지혜롭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전지훈련팀, 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동참

진안군 체류태권도역도팀, 올림픽 유치 염원 퍼포먼스 진행

진안군에서는 지난 16일,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진안군에 체류 중인 전북 유소년 태권도 꿈나무 선수단(30명) 및 중·고등학교 역도 선수단(29명)과 함께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전지훈련의 메카로 부상한 진안군은 생활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으로 전지훈련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0만 도민의 열정과 희망이 담긴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와 진안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2026년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지 훈련 중인 선수들도 함께 응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군을 찾아 동계 전지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이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및 2026년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성공 개최에 한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아무런 부상없이 훈련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동절기 상하수도 긴급상황 대기반 운영

임실군이 동절기 상하수도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휴일 상황 대기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 발생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상하수도과 휴일 상황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2명이 근무해 민원에 대응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실에서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상황실에 접수된 상하수도 관련 민원은 긴급 복구 대행업소와 협업체

량기 동과 및 상하수도 관로파손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긴급 복구를 위한 비상 자재를 상하수도 비상 자체 창고에 상시 구비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비상 자재를 분출해 신속히 복구해 주민 불편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겨울철 동파 및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휴일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신청 및 접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모임체로 각 연구회는 품목별 재배기술 교육, 회원 간 정보공유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지난 2024년에는 사과, 토마토 등 18개 품목 37개회, 1,320명의 회원이 활동했으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4회의 기술교육과 현장교육을 추진한 바 있다.

장수군에 주소를 둔 20명 이상의 동일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접수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하면 된다.

연구회로 등록이 확정되면 연구모임과 관련된 작목의 재배기술 향상을 위

한 이론과 실습 교육, 우수농가 현장교육 등 연구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동일한 작목을 재배하거나 관심이 있는 연구회원들이 함께 타지역의 선진농가나 기관의 시설을 견학하고 재배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회원간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지역농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063-350-28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독감 예방 접종 및 예방수칙 홍보 주력

독감 의사 환자 수 증가세

최근 독감(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99.8명/1,000명)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주군이 인플루엔자 예방 홍보 및 접종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보건의료원과 보건소, 보건진료소, 관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13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 장애인·의료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5·18민중유공자는 무료, 14~64세 일반주민은 유료(보건의료원 1만 1천 원) 접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은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접종 기관별로 백신 접종 여부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보건의료원(063-320-8226)으로 확인하면 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이승하 과장은 "독감 의사환자 수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13~18세 발병률이 가장 높다"라며 "현재 급속도로 유행이 되고 있고 봄철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아직 예방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군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반딧불소식지를 비롯한 별도의 단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접종 중인 백신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주와 매우 유사해서 면역체 형성에도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며 "주민들이 백신 접종은 물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기 생활화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희호 기자



(주)솔라파크, 진안군에 180만원 상당 '설명절 선물세트' 전달

(주)솔라파크(대표 윤근성)는 지난 17일 진안군청 군수실을 찾아 180만원 상당의 설명절 선물세트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전달된 선물 세트는 식용유, 맛술 등 생필품으로 구성된 3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으로 총 70 박스를 진안군에 전달했다.

군은 전달된 후원 물품을 관내 독거 노인가구 등 취약 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주)솔라파크는 지난 2021년부터 진안군의 소외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매 명절마다 백미, 선물 세트 등을 기탁하며 온정을 나누고 있다.

윤근성 대표는 "설명절을 맞이해 취약계층 이웃들이 외로움을 달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전준성 진안군수는 "명절을 맞아 우리 지역을 위해 물품을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완주군 꼬마둥지어린이집, 아나바다 수익금 1백만원 기부

완주군 봉동읍 꼬마둥지어린이집(원장 권영자)이 지난 16일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모은 수익금 1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꼬마둥지어린이집에서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한 작은 실천의 일환으로 31명의 원아들과 교직원, 학부모 등이 함께 준비한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모은 수익금이다.

꼬마둥지어린이집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아나바다 행사를 열어 모은 수익금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물품을 기부해왔으며, 올해로 3년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권영자 원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원생들이 나눔의 기쁨을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원아들과 함께 아나바다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 나눔과 선행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온라인 기자단', 활동 본격화

블로그·개인 SNS 운영 직장인 등, 군정소식 취재 활동 기사 및 영상 제작 등 취재 활동 진행

순창군이 지역의 문화와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순창군 온라인 기자단'을 선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군은 20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기자단 및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기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온라인 기자단은 지난해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전국에서 블로그 및 개인 SNS를 운영하는 직장인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12월까지 군의 관광명소,



순창군이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순창군 온라인 기자단'을 선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축제, 행사를 비롯해 전반적인 군정소식에 대한 블로그 기사와 영상을 제작하는 등 취재 활동을 하게 된다.

발대식에서는 순창군의 SNS 채널 운영 전략과 효과적인 취재·기사 작성법에 대한 실무 교육이 실시됐다.

염기남 순창부군수는 "순창의 다채로운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시각에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주)세창스틸, 정읍시 수성동에 성금 700만원 기탁

13년째 매년 경제적 어려움 겪는 이웃 도와 감동 전해...정읍애육원 등 5개소에 전달 예정

정읍시 2공단에 위치한 (주)세창스틸(대표 이재선)은 지난 17일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수성동에 700만원을 기탁했다.

자동차부품 강판 제조업체인 (주)세창스틸은 2013년 경기도 안산에서 정읍으로 이전한 이후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특히, 13년째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재선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부받은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성동주민센터, 북부노인복지관, 정읍애육원, 자애원, 정읍가정상담센터 5개소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동백로나운상가변영회, 220만원 상당 상품기탁

군산 동백로 나운상가 변영회가 사랑의 상품 기탁으로 이웃과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나운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동백로 나운상가 변영회(회장 이삼석)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라면 및 영양음료 등 2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상품품은 변영회원들이 추운 겨울에 더욱 힘드실 어르신들과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

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마련했다.

동백로 나운상가 변영회는 54명의 회원들로 구성됐으며, 1인 1계좌 성금을 모금해 독거 가구에 건강음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웃의 안부와 안전 확인, 위기 상황을 위한 사업 등으로 나눔운동을 대표하는 지킴이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주)바움디스트리, 남원시에 전기난로 100대 전해

매서운 추위가 한창인 가운데 남원시에 훈훈한 온기가 채워지고 있다. 남원시는 희망 2025나눔캠페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7일 (주)바움디스트리(대표 양재준)에서 전기난로 100대(한가액 495만 원)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2024년 설립된 (주)바움디스트리는 인천에 사업체를 둔 전자상거래회사로 아직은 신생기업이지만 빠르게 입지를 다지며 꾸준히 성장 중인 기업이다.

대표 양재준은 남원이 고향으로, 이번 기부는 고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심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대표의 의지도 함께 담겨있다.

민선식 남원 부시장은 "(주)바움디스트리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기부해 주신 전기난로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함께 더 따뜻한 남원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임실 관촌면 신유섭 씨, 백미 120포 기부...2016년 꾸준

임실군 관촌면 금정마을 신유섭 씨가 지난 16일 관촌면사무소를 방문해 저소득층을 위해 쌀 120포를 기부했다.

신 씨는 2016년부터 꾸준히 백미를 기탁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 협의회장 과 관촌면 행복보장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꼼꼼히 살피고 돌봐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신유섭 씨는 "설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할 수 있어 기쁘고,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창대 관촌면장은 "해마다 잊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주신 신유섭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면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펼쳐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고창 심원면 사등마을 어깨동무 봉사단체, 100만원 기탁

고창군 심원면 사등마을 봉사단체인 어깨동무(이장 김한옥)가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2023년부터 이어져온 꾸준한 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다.

사등마을 김한옥 이장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금을 기탁했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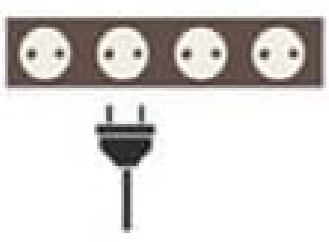
방준형 심원면장은 "마음을 모아주는 사등마을 어깨동무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잘 전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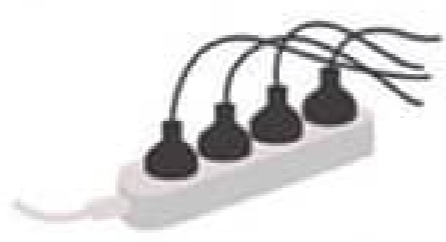
생활속 화재 예방 주의

멀티탭 전원이 아닌 플러그 뽑기!



난방기기를 장시간 켜놓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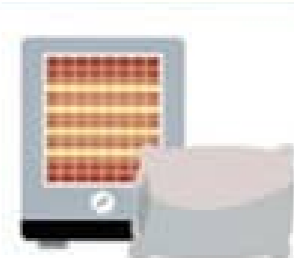
쓰지 않는 콘센트는 뽑아주세요

가스레인지 사용 시 조심 또 조심!



사용 전엔 환기를, 사용 후에는 밸브까지 잠그는 습관

난방기 옆 가연물은 치우기!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 난로 주변에 닿지 않도록 조심!

〈一事一言〉



행복했다는 윤석열과 이상민의 심뽀(2)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페락주의 행복론은 가짜 행복론이다. 따라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닌 가짜 행복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행복이 아닌 단순한 쾌락이나 쾌감일 뿐이다. 페락주의적 행복론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쾌락의 집을 따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쾌락이나 쾌감을 곧 행복으로 이해하는 페락주의 행복론에 의하면 윤석열과 이상민은 열심히 행복을 추구한 사람들이다. 윤석열은 국가의 최고권력을 악용해 정적과 국민들을 탄압하고 주변인들을 학대하면서 짜릿한 쾌감을 느꼈을 테니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이상민 역시 윤석열에게 충성을 바치고 그 대가로 떡고물과 귀여움을 받으면서 쾌락을 느꼈을 테니 자신이 행복했다고 믿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내란 시도는 자신의 행복을 완성하기 위해 단행한 거사라고 할 수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해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 고문하고 처단하는 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쾌락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페락주의 행복론을 믿는 것은 사회에 그다지 큰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사회적인 힘센 자가 페락주의 행복론을 믿는다면 필연적으로 타인들과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게 된다. 페락주의적 행복론에 의하면 윤석열 같은 인간들은

타인을 괴롭히고 학대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할 것이고, 연쇄살인범은 타인들을 살해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쾌락이나 쾌감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페락주의적 행복론은 가짜 행복론인 동시에 반사회적인 행복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철학자 임정환은 『행복으로 보는 서양철학』에서 '만약 쾌락이 곧 행복이라면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불합리한 결론'(임정환, 『행복으로 보는 서양철학』, 2017, 씨아이알, 99쪽)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페락주의 행복론이 옳다면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페락주의 행복론은 '동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행복은 건전한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생활에서 느끼는 보람과 만족이다. (행복에 대해서는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김태형, 2023, 갈매나무 참고) 건전한 삶의 목적이란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의 목적을 의미한다. 윤석열은 자신의 병적인 심리로 인해 끊임없이 힘, 권력을 추구했다. 즉 그는 자신의 사적 욕망이나 이익에 기초한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왔다. 이런 목적은 불건전한, 반사회적인 삶의 목적이다. 반면에 누군가가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 훌륭한 작가가 되려는 삶의 목적을 세웠다면, 그것은 건전한 삶의 목적이다. 행복은 건전한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갈 때에만 누릴 수 있다.

보람은 사람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활동 혹은 생활을 할 때 체험하는 대표적인 감정이다. 사람은 공동체에 기여하면서 살아갈 때 혹은 자신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낄 때 보람이라는 감정을 체험한다. 보람은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이다. 즉 보람이 없다면 아무리 쾌감을 많이 느끼더라도 행복해질 수 없다. 건전한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보람을 느끼게 되어 행복해질 수 있다. 반면에 불건전한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단지 쾌락만을 느낄 수 있을 뿐 보람은 맛보지 못한다. 따라서 그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페락주의적 행복론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이완용 같은 매국노들이다. 매국노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마음껏 쾌락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참된 행복론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안중근 의사 같은 독립운동가들이다. 그들은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았기에 가난하게 살았고 투옥, 고문, 살해와 같은 고통과 위험을 한평생 감수해야만 했다. 한마디로 독립운동가들은 쾌락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해방이라는 건전한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했기에 동물적인 삶을 살았던 매국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가 없고, 누릴 수가 없었던 보람을 만끽하며 살았다. 즉 독립운동가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많은 국민이 국회의사당을 달려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이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 거리로 나와 싸우고 있다. 행복론의 견지에서 볼 때, 내란 세력과 국민 간의 싸움은 페락주의적 행복론을 믿는 이기적이고 동물적인 인간들 간의 결전이다. 참된 행복은 타인들과 공동체에 불행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선물한다. 다시 말해 참된 행복은 단지 나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어서 그것의 추구는 행복사회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올해에 국민들은 반드시 내란을 진압하고 모두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모두가 행복해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끝>

본 칼럼은 시민연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을 발췌합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이제 막 시작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도민들에게 보고한 성과와 계획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전북특별법의 시행과 함께 도입된 5대 핵심산업 전략과 특례들은 지역의 고유한 강점을 살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전북도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도약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농생명 산업은 전북이 가진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야다. 7개의 선도지구 선정과 함께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허가 권한 이양은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지역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농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기업 유치와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관광 산업은 전북의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K-문화산업 육성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한식, 한복, 판소리 등 전통문화와 현대적 콘텐츠를 결합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문화산업진흥기구를 조성하려는 계획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K-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학교 설립과 같은 교육 기반 강화도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고령친화 산업과 핀테크 산업은 전북

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 인구에 대응하여 의료기기, 건강식품, 복지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고령친화 복합단지지는 지역 경제와 복지 수준을 동시에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핀테크육성지구 지정과 지원센터 운영은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전략은 전북을 글로벌 R&D 허브로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환경 보호와 산업발전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례를 활용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 제도 시행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만금 고용 특구를 중심으로 한 인력 수급 지원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단기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강점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북특별법의 특례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도민과 함께 꿈꾸고 실현하는 전북의 새로운 시대가 기대된다.

현곡정사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교육기관, 서원
-지정일 - 1974년 9월 27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고창군 고창읍 주곡1길 68-34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2011년 10월01일 창간 /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윤관우) 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안주지국 010-3672-0308
인주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8626-6049	팔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읍지국 010-2800-293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흔적도 없이 지나갈 것 / 황지우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당신이 지독한 뜻을 알거나 해?"
패종 시계가 두 번을 쳤을 때
울리는 실내: 그는 이 삶이 담긴
연약한 막을 또 느꼈다

2미터만 걸어가면 가스벨브가 있고
3미터만 걸어가면 15층 베란다가 있다
지나가기 전에 흔적을 지울 것
패종 시계가 들어가서
아직도 떨고 있는 거울에 담긴
30여평의 삶 지나치게 고요한 겨울

아내에게 말했다:
"그래, 내 삶이 내 맘대로 안 돼"
서가엔 마르크시즘과 관련된 책들이
절반도 넘게
아직도 그대로 있다
석유스토프 위 주전자는 김을 뚫뚫 내쉬고

시인 약력 ; 1952년 전남 해남 출생.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홍익대 대학원 미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하고 '문학과지성'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한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교수와 총장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로' '나는 너다' '계 눈속의 연꽃'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등이 있다. 제3회 김수영문학상과 제36회 현대문학상, 2006년 육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했다.

JBT 전북도민의 희망찬 미래의신문 전북타임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063-282-9601 기사제보 063-282-9600



▲ 구절초 지방정원

휴식과 힐링형 관광 상품 운영... '잘 쉬고, 기운을 얻어갈 수 있는 특별한 관광지'

정읍시가 새해 시작과 함께 여행자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관광도시 만들기를 가속화 한다. 힐링과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올해의 관광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휴식과 힐링형 관광 상품 운영으로 '잘 쉬고, 기운을 얻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관광지'를 만들어 간다는 전략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관광은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을 중요시하며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여행을 선호한다. 또 시니어 여행과 반려동물 여행 등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하는 여행이 증가하고 있다. 대중적 명소보다는 자연과의 교감을 중시하며, 숨겨진 관광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웰니스, 반려동물, 자연, 미식여행, 숨겨진 여행지 발굴 등 최근 관광 흐름과 수요에 대응하는 상품 개발에 나서는 한편, 기존 관광자원에 스토리를 가미해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내장산문화광장 순환열차 달빛사랑숲 등 관광자원 다원화 노력 '성과'

정읍시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KTX정차 등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토대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다변화하고 급변하고 있는 관광 트렌드 변화를 직시하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정읍전에 바다형 미로분수를 선보였고, 디지털 실감콘텐츠

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미한 달빛사랑숲, 내장산문화광장 순환열차와 한국가요촌 달하, 용산호 미르샘 분수, 빛꽃축제와 물빛축제의 차별화된 개최 등이 주목받았다.

현재도 내장산 문화광장 일대에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및 동화마을 테마공간, 기적의 놀이터와 방문객 편의를 위한 상가존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대표 먹거리인 쌍화차와 스타 셰프와의 협업을 통해 내장산관광특구 신메뉴 개발 등 먹거리 콘텐츠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내장산국립공원과 구절초 지방정원이 '2025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2024 SRT(수서발 고속철도) 어워드'에서 '2025년 방문해야 할 10대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 여행자와 시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관광도시 만들기 착각'

시는 최근 관광 트렌드, 즉 힐링과 웰니스, '원포인트' 테마, 특별한 매력을 가진 숨은 관광지 등에 대응한 관광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여행자와 시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관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여행객 82%가 휴식을 목적으로 여행하며, 자연 속에서 치유를 원한다. 정읍은 숲과 휴식 여행의 최적지로 특화된 곳이다. 내장

산국립공원과 두승산과 입암산, 구절초 지방정원, 솔티 숲과 월영습지, 용산호 등 깨끗하고 고요한 자연환경이 강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웰니스 트레일 개발과 계절별 웰니스 정읍관광 캠페인 등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읍의 또 하나의 핵심 관광자원은 기운을 북돋워 주는 먹거리.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쌍화차, 귀리떡갈비와 찜밥, 매운탕, 두부, 나물류의 반찬 등 정읍산(産) 농특산물로 만든 음식 모두가 힐링푸드다.

이는 정읍의 대표자원인 내장산의 매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미식 여행'과 '트레킹'이라는 두 축으로 진행 중이다. 스타셰프 이원일과 손잡고 지역의 풍부한 식재료를 활용한 특과 먹거리를 개발해서 내장산에서 만끽할 수 있는 미식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시범 운영한 '내장산 히든로드' 시리즈는 '트레킹 명소로 정읍'의 가능성을 확인 해줬다. 중급자를 위한 '오색단풍길(추령~ 장군봉과 연자봉~ 내장사와 단풍터널)'과 초급자를 위한 '산천유수길(솔티마을~솔티옛길~내장산조각공원~내장호둘레길~내장산단풍생태공원)'이 높은 인기 속에 운영됐다.

▶ 지역민과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 상품개발과 홍보마케팅도 새롭게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파급력 있는 홍보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여행객 55%가 특정 테마에 몰입한다는 점에도 주목, 쌍화차 테마투어, 내장산 트레일런, 인생 샷 플레이스 등 '원포인트' 테마 여행 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67%의 여행객이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 방문을 희망하며, 숲과 산은 특히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에도 대응하고 있다. 특히 KTX로 서울에서 1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입지를 활용해 '서울 근교 비밀의 쉼터' 등으로 브랜딩하거나 지역 내 소소한 카페와 공방, 역사적 명소를 묶은 '나만의 정읍' 등 숨은 관광지로서의 특별한 관광 경험 제공 프로그램 개발도 서두를 생각이다.

이러한 노력은 올해부터 철도를 이용해 정읍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운임요금 50% 할인이 적용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철도공사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했고, 이는 지난 8일부터 적용된다.

MZ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관광명소 발굴과 기존 명소를 참신하게 시각화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짙은 가을 감성이 묻어나고 풍광이 매력적인 12개소(▲구절초 지방정원 ▲쌍화차거리 ▲내장산문화광장 순환열차 등)를 먼저 선보였다.

결과물은 시 홈페이지와 SNS와 관광 관련 보도자료 자료 사진으로 활용함은 물론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국내외 여행 정보 서비스 플랫폼에도 적극 제공

할 예정이다. 또 조만간 사진 콘텐츠와 맛집 투어를 연계한 관광상품(트레블 스텝 투어)도 선보일 예정이다.

▶ 관광 활성화, 최종 중착지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잘사는 정읍 만들기

지속적인 관광 활성화 노력은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에 관광산업에 활기가 돌면서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

년 2분기(4~6월)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정읍시의 생활인구는 34만 7755명이다.

1분기 33만 2088명보다 5% 증가한 것인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읍 관광 비전 실현과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관광정책 추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의지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정읍 관광 정책 수립과 추진의 허브(HUB)가 될 관광체육국을 신설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이학수 시장은 "정읍을 찾는 관광객 한 분 한 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광정책 마련과 기반 시설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쏟겠다. 무엇보다 이러한 관광 활성화 노력을 통해 시민들께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화정



▲용산호